

보도 일시	2022. 3.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3. 25.(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강연경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 한·중·일 우정의 미래를 담다

- 3. 25. 경주 월정교 일원에서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개최 -

경상북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지원하는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이 3월 25일(금) 경주 월정교 일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 한국 경주시, ▲ 중국 원저우시·지난시, ▲ 일본 오이타현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주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중국 원저우시·지난시와 일본 오이타현과는 온라인으로 만나 3국 도시 간 우의를 돈독히 다질 계획이다.

특히, '찬란한 신라문화 실�크로드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 공연에서는 신라의 태동에서부터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화합에 기여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미래를 보여준다.

##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 표어 아래 연중 문화교류 협력사업 추진

경주시는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7월),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행사(7월), 동아시아 문화 학술 토론회(9월), 2022 한옥문화 박람회(11월), 폐막행사(11월) 등 다양한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이어간다. 다만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협력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정렬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중·일 3국이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문화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개요 및 실행계획(안)



## 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개요

- (배경/목적)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2년 5월)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개최 합의, 3국 도시 간 상호 이해 및 문화교류 활성화
- (주요행사) 개·폐막행사,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 ('22년 선정도시) 한국 경주시, 중국 윈저우·지난시, 일본 오이타현

###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현황

- |                         |                           |
|-------------------------|---------------------------|
| - '14년 :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 | - '15년 : 청주, 칭다오, 니가타     |
| - '16년 : 제주, 닝보, 나라     | - '17년 : 대구, 창사, 교토       |
| - '18년 : 부산, 하얼빈, 가나자와  | - '19년 : 인천, 시안, 도쿄도 도시마구 |
| * '20년은 코로나19로 미개최      | - '21년 : 순천, 사오싱·둔황, 기타큐슈 |

## 2 경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실행계획(안)

- (표어(슬로건)) **문화로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
- (사업기간/장소) 2022년 1월 ~ 12월 / 경주시 일원
- (주요사업) 공식행사(개·폐막식) 및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행사 ('22. 3. 25.~3. 26. / 경주 월정교 일원)</li> <li>▶ 폐막행사 ('22. 11. 18.~11. 19. / 경주예술의전당)</li> </ul>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 ('22년 7월 / 경주화랑마을)</li> <li>▶ 동아시아 문화 심포지엄 ('22년 9월 / 경주 힐튼호텔)</li> <li>▶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 ('22년 9월 / 봉황대, 황리단길, 교촌한옥마을)</li> </ul>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 ('22년 7월 / 경주엑스포대공원)</li> </ul>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 ('22년 6~7월 / 경주화백컨벤션센터)</li> <li>▶ 2022 한옥문화박람회 ('22년 11월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전통 건축양식 포럼, 한·중·일 건축양식 홍보관 조성</li> </ul> </li> </ul>